

**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만평생통장**  
 \*예금 저축 실적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1년이상 저축하시면 저축액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9시~18시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태환 / 발행인 김관진 /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11월 27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 이렇게 들었다

25일은 음력 10월15일 병자년 동인지 절제일이다. 3개월 동안 전국 제방의 총림을 비롯한 선원에서 일제히 신문을 걸어 잠그고 용맹정진에 들어갔다. 진실로 생사의 큰일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침구해 인천(人天)의 눈이 되어 일대사를 알게되기를 서원하면서... 그래서 안거 결제해 조사스님의 법어는 더욱 살아 숨쉬며 우리곁에 다가신다. 역대 조사스님들의 결제법어를 다시 듣는다. (권집지 주)

오늘은 천하 총림의 결제 하는 날이오. 청경산 비구 나옴은 이름도 없고 글자나 함정도 없으며, 미오(透悟)도 없고 수증할 것도 없으면서 밝기는 해와 같고 밝기는 햇살 같은 그 한 불건을 여러분의 법전에 흠여 두고 북을 치면서 자세히 보기를 두루 청하는 것이오. (나옹스님)

도를 배우는 자 무엇이 이 손잡이가 되는가. 저 화두를 드는 것. 이것이 손잡이가 되니라. (중 독봉스님)

부디 공안을 가져 생각으로 헤아려 알아 마치고 하거나, 경서상에서 찾아 알려고 하지 마야 하니, 반드시 탁 끊어지고 특!타져야 비로소 집에 돌아오는 것이니라. (중 고매스님)

반드시 한 생각에 잘못을 알아서 알되야 탁 끊겨 전체를 끊어지고 가는 것이 참다운 정진이며, 참법으로 여러 백 공양하는 것이다. (중 회암스님)

결제라 하여 대중이 운집하였다가 해재라 해서 도리어 대중이 흩어지니 이것이 또한 일없는 데서 일을 일으키는 것이다. (혜암스님)

천하의 남자들이 살고 버는 날이오. 조사관(曹師)을 뵈으려고 한다. 법다이 수행하면 분향공안이 나타나 한결 같으리라. (효봉스님)

오는 것도 즐거워 말고 가는 것도 서운하게 생각 마라. 울고 싶으면 실컷 울고 웃고 싶으면 실컷 웃어라. (고봉스님)

모든 불보살 평화가 오지 심(心)자 하나 뿐이오. 모든 다라니가 오지 심자 뿐이더라. 그래서 심자를 현상현하 시 방세계를 두루 찾아보도 심자가 없더라. (촌성스님)

한사로 수행하는 운수력이 강연하 편과 마음 깨닫기를 구하네. 법 받음 그리자니 피곤한 며칠 한 산속 속을 마저 저버리네. (경봉스님)

회후에 의심없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를 꼭꼭히 비추는 것은 귀신 글이오. 문자(文字)는 술 파먹은 파게기니라. (전강스님)

의심되면 행주좌와 어묵동 정 어느때 어느 임무 어느 곳에서나 이 무슨 뜻인고? 이렇고? 간찰하 의심하고 반성하여 살필지이다. (고암스님)

## “경복궁 불교유물 제자리에”

### 교계 강력요구... 문체부·중앙박물관 “긍정 검토”

최근 이적이 거론되고 있는 경복궁 안의 석탑, 부도 등 불교유물들을 불교계에서 둘러싸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주관부처인 문화체육부가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앞서 조계종(총무원장 일주)은 지난 15일 문화체육부(장관 김명수) 문화재관리국(국장 정기영) 국립중앙박물관(국장 정기영) 국립중앙박물관에 각각 공문을 보내 “역불경”의 상징인 조선시대 정종 경복궁에 불교의 성보문화재가 조경용으로 있는 것은 치욕”이라며 불교 연고지로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조계종 기파실장 현승스님과 문사부장 성관스님은 지난 19일 문체부 실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성사들의 사리탑인 부도가 박물관의 야외조경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불교 모독”이라며 반항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측



경복궁에 성보문화재가 조경용으로 전락돼 있는 것은 치욕이라며 불교계가 또다시 반항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은 “역극 검토도 보겠다”는 대답과 함께 앞으로 구체적인 실무접촉까지 가지기로 한 것으로 전해져 정부의 강경한 반항 거부태도가 많이 누그러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을 비롯 중앙승가대, 강원지구청년회의소, 민주문화인들과 남양주 불인사 등이 정부에 대해 유물반환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물의 대부분이 폐사지에서 옮겨왔고 도난 우려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기에 반환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화계의 전반적인 견해다. 불교계가 내부안정으로 문화재보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며 관리에 대한 지장이 늘어나고 있고, 연고 폐사지에도 절들이 복원되는 곳이 많아 관리에 하자가 없을뿐더러 대부분 2~6m에 이르는 석탑등



전국 주지 결의대회에서 3천여 스님들은 민족문화 훼손과 사찰환경 파괴는 절대 안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진=고영애 기자)

## “사찰환경 훼손 절대 안된다”

### 전국주지결의대회 3천여스님 개발행정 각성 촉구...종정교시 내려

환경보존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전국 본말사 주지결의대회가 지난 22일 서울 조계사에서 3천여명의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총무원장 일주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민족문화 수호와 환경보존을 위해 종단소임자들의 의견을 하나로 통일시키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선언하고 “안으로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고 그만음의 성취를 사바세계에 회향하자”고 호소했다. 이에앞서 조계종정 원하스님은 △지계정정 △수도정진 △보살도심현 △교화군생 △인문문화수호 △환경보존 △종단자주화 등의 종정교시를 내려 결의대회의 성격과 방향을 제시했다. 환경관련 마당곡으로 시작된 이날 결의대회에서 전국 본말사주지스님들은 “최근 전국적으로 자행되고있는 사찰환경과 파는 정부의 무관심과 정책부재, 행정당국의 무인칙한 집행에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당국과 지자체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심각한 민족문화 훼손과 자연환경의 파괴사태에 깊이 우려한다”고 지적하고 △불교관계법령 개정 △사찰환경 파괴하는 사업 백지화 △기아산공포장, 모악산 개발계획 백지화 △고속철도 경주역사 시 외곽설치 △문화유산보존예산 증액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이번 결의대회에는 강원총무사 김봉은신부 등 종교계와 정치, 문화등 각 사회단체에서 연대 메시지를 보내와 사찰환경보존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보였다.

거대한 유물이기 때문에 도난의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것, 따라서 상태가 좋고 관리자가 확실하다면 유물들이 제자리를 찾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이다. 문화재위원인 한병삼씨(’97 문화유산의 해 집행위원장)는 “유물자체를 잘 조사해 상태가 좋은 것은 하나씩 하나씩 연고지로 반환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검토해 불만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이 정각회에 요청한 개정안 가운데 농지법은 제외됐다. (권기사 3면)

**25일 전국사암 동안거**  
 불기 2540년 동안거가 지난 25일 봉도사를 비롯 총림과 전국 각 정당 불자의 21명의 연명으로 의원발의됐다.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전통 사찰보존법 자연공원법 건축법 등 3개법안이며 조계종 총무원

**인각사지 복원 물거품될 듯 15면**  
**‘참사람결사’ 서용스님 범어 8·면**  
**기획연재-지구촌 실천불교 운동가 전**  
 구독료납부 은행지보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대승종 미륵반가상 중·고교에 보급시다**

정일스님 김종규회장

**동행해주신 분**  
 △정일 선학원이사장: (5구좌) △김종규 삼성출판사회장: 평양중학교(3구좌) (11월21일 현재 총 535구좌 접수)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누구나 가능  
 △구좌단위로 참여합니다.(1구좌 10만원)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 원바디를 기억하십니까?

“끓어서 마실 원바디 지금도...”

30년 동안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洋藥品の 원바디가 創業 50周年을 맞아  
 1996年7月1日부터 470원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 받게 되었습니다.  
**원바디의 앞날에**  
 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효능·효과: 피로회복,간기능 보조 및 개선  
 용법·용량 1일1회~2회

**일양약품** 醫藥品